

미 145%→30%·중 125%→10%…90일간 관세인하 합의

관세 각각 115%포인트 인하
이틀간 마라톤협상 끝 전격 합의
무역전쟁 긴장수위 다소 완화

미국과 중국이 치킨게임을 벌이며 서로에게 부과했던 상호 관세를 일단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 기간에 상호 관세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양국 간 최종적인 관세는 추가 협상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최대 무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시장 등의 우려가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협상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톡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상호 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트럼프 2기 들어 중국 상품에 매긴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낮

아진다.

미중은 이 같은 합의를 오는 14일부터 조치하기로 했으며, 인하된 관세를 90일간 적용하고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합의 내용을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내용을 발표했으며, 미국 백악관과 중국 상무부는 각각 공동성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앞서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11일 이틀간 고위급 마라톤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마약 대용 등을 이후로 중국에 2월과 3월에 각각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해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이 이에 반발해 보복관세 조치에 나서자 미국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대중 관세는 145%까지 높아졌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관세를 125%로 끌어올렸었다.

미국의 대중관세 30%는 기존 팬타닐 관련 20%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10%의 상호관세를 합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중국도 최소한의 10% 상호관세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팬타닐 관련 관세 20%를 제외하면 미중은 각각 10%의 상호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양국 대표단은 어느 쪽도 디커플링은 원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양국이 팬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밀거래를 단속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양국 간 관세전쟁이 일단은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양측은 추가적인 무역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가 논의에는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백악관은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추가 논의는 중국과 미국, 제3국에서 번갈아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전쟁을 벌이며 사실상 교역 관계를 단절했던 양국이 얼굴을 맞대고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회담 이후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전면적인 리셋(reset·재



미국과 중국이 치킨게임을 벌이며 서로에게 부과했던 상호 관세를 일단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

설정) 협상이 있었다”고 밝혀 합의의 도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로 무역전쟁의 긴장 수위가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양국 간 관계 약화를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

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이번 합의는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WP는 이번 합의가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을 위한 길을 열어준 것이며, 무역 전쟁을 종식할 최종 합의는 양국 정상 간 만남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중국 기업들, 외국 부품 땀다

부품·원자재 국산화에 박차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여파로 중국 기업들의 공급망 자립화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시작한 관세전쟁이 역설적으로 중국 제조업 자립화에 큰 동력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FT는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20여개 기업의 재무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업들이 외국산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이나 원자재를 더 많이 사용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또 동종 업계의 부품 국산화 움직임이 자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반도체, 화학, 의류기기 분야 기업들이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중국

기업들의 공급망 재조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발표하면서 산업 자급자족을 추진해왔다.

이는 중국의 ‘제조업 강국’ 중장기 계획의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별적인 글로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해 부과한 고율 관세로 인해 더 탄력을 받게 됐다고 FT는 분석했다.

로디움 그룹 애널리스트로 최근 ‘중국제조 2025’ 관련 보고서를 쓴 카밀 블레노아는 관세가 중국 기업 자급자족에 대한 열망을 더욱 높일 뿐이라면서 “그들(중국)은 분명히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 관세 전쟁은 가능한 한 속도를 내라는 신호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만, 미 무기 구매 23조원 특별예산 편성 예정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시달리는 대만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해 5년간 5천억 대만달러(약 23조원) 규모의 특별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2일 보도했다.

대만 정부 관계자는 대만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증액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부가 행정원에 관련 계획안을 이미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측과 협의의 결과에 따라 관련 비용이 상당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엔 편성될 예산은 지난달 행정원장(총리 격)이 밝힌 국토 강인성 분야 관련 특별

투자 1천500억 대만달러(약 6조9천억원) 등과는 별도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국토 강인성 분야 예산은 해운서(해경)의 해안 순찰 시설, 무인기, 정보통신 장비 개선에 주로 투입된다.

이번엔 편성되는 특별예산에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MH-60R(시호크) 해상작전 헬기 등의 포함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왕위민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대만 공군이 1995년과 2005년에 도입해 운용 중인 E-2K 조기경보기를 E-2D 조기경보기로 대체하면 대만이 명실상부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바람 쐬고 싶어” 중 여객기서 승객 비상문 열어

중국 남부지방의 한 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하자마자 승객이 비상문을 무단으로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지부뉴스 등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 42분께 중국 창사에서 출발한 동방항공 MU5828편 여객기가 쿤밍공항에 착륙하자마자 한 남성 승객이 비상문을 열었다.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으나 승무원들이 즉시 대응해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승객들은 약 20분 뒤에 무사히 기체에서 모두 내렸다.

목격자들은 비상문을 연 승객이 지시 등에 불이 들어왔길래 문을 열어 바람을 조금 쐬려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승객은 사건 직후 공안(경찰)에 의해 구금돼 당국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종에 따라 비상문 무단 개방으로 인한 손해는 약 10만위안(약 2,000만원)에서 20만위안(약 4,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4개국 정상.

연합뉴스

젤렌스키 “푸틴, 직접 만나자”…휴전협상 급물살탈까

트럼프·유럽 공동 압박에 변화
‘시간끌기용 기만술’ 지적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전격 제안하고, 우크라이나도 이에 일단 응하기로 하면서 지지부진하던 휴전 협상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직접 대화에 대한 양측의 진정성에 따라 만남의 실제 성사 여부와 협상 결과물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타스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푸틴 대통령이 일방 선언한 72시간의 ‘전승절 휴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벽 시간에 나왔다. 전승절 휴전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와 서로 적대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주고받던 태도를 돌연 바꾼 것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앞선 관영매체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요구해 온 ‘30일 휴전안’에 대해 “속고해 봐야 한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의 배경은 우선 서방의 전망위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정상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기자

회견을 열어 12일부터 30일간 육해공에서 모두 휴전하자고 러시아에 촉구했다.

이들은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과 함께 에너지·금융 부문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러시아를 압박했다. 5개국 정상은 이날 함께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 없는 휴전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도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프란치스코 전 교황 장례식을 계기로 바티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독대한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2차 제재 등을 거론하며 “(푸틴 대통령이)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미국과 대화 하마스 “미국 이중국적 인질 석방 예정”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던 마지막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 이중국적자인 이스라엘 군인 예단 알렉산더(21)가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과의 휴전과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반입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알렉산더의 가족도 그가 ‘며칠 안에’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해 약 1천200명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납치했다. 이후 두 차례 휴전이 성사되면서 인질 상당수가 풀려났지만, 아직 58명이 억류돼 있고 이 중 34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BBC는 알렉산더가 현재 생존해 있는 미국 국적의 마지막 인질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하마스 당국자들은 며칠 전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의 직접 대화가 개시됐다면서 휴전과 인질 석방, 가자지구 구호품 반입 재개 등 현안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전 잔혹한 전쟁을 종식하고 모든 생존한 인질과 유해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려보내려는 미국과, 중재국의 노력에 대한 선의의 조처였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